

‘해결사’ 아사니 뜬다...4강行 보인다

광주FC, 오늘 안방서 성남FC와 코리아컵 8강전

“누가 뛰어도 주전” 확실한 ‘스타 탄생’ 주목
화끈한 승리로 팀 분위기 반전 신호탄 쏜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17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K리그2 성남FC와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5라운드 8강전 홈경기를 갖는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4강전부터는 홈 & 어웨이 대결로 승자를 가린다.

지난 K리그1 23R 인천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광주는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광주는 K리그1에서 8위에 머물러 있지만 내심 코리아컵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다. 이번 8강전 승리를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성남은 현재 5경기 연속 무승(4패 1무)으로 K리그2 12위로 떨어졌다. 그 사이 무려 16골이나 내줄 정도로 수비가 헐겁다. 주중 장거리 원정 부담까지 겹쳐 힘겨운 승부가 예상된다.

광주는 알바니아 특급 아사니의 출격이 예상된다.

다시 돌아온 아사니는 엄지성의 이적 공백을 메울 적임자로 꼽힌다. 지난 시즌 33경기에 출전, 7골 1

도움을 올리며 맹활약한 아사니는 비록 올 시즌에는 1경기 교체 출전에 그쳤지만, 알바니아 대표로 참가한 유로 2024에서는 예선 전 경기를 소화하면서 크로아티아전 1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다.

광주는 거의 매 경기 출전 엔트리가 바뀔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선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팀 누가 뛰어도 전력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엇비슷한 실력을 지닌 선수들이 많은 데다, 개인 기량보다는 조직력과 전술을 우선하는 팀 컬러 때문이다.

따라서, 코리아컵은 그동안 뛰지 못한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쇼케이스 무대다.

이번 경기에서도 조성권, 오후성, 하승은, 브루노 등 선수 다수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경기에서 뛰지 않았던 박대준, 이강현 등이 가세해 정규 리그와 다를 바 없는 전력이 가동된다.

광주는 이번 홈경기에서 화끈한 승리를 거둬으로써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또한, 이번 코



광주FC 알바니아 특급 아사니

〈광주FC 제공〉

리아컵 홈경기에는 이정호 감독의 K리그 통산 100경기를 축하하는 커피차라는 특별 선물이 대기한다. 커피차는 1번 게이트 N석 뒤쪽에 위치할 예정이며, 총 300잔을 팬들에게 선물하면서 코리아컵 4강 진출을 위한 팬들의 응원을 더욱 북돋을 예정이다.

9월부터 아시아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해야 하는 광주로선 코리아컵 8강을 통해 주전을 위협할 새로운 스타 탄생의 무대가 되길 바라고 있다.

과연 누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인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희중기자

광주시체육회·광주자생한방병원 업무협약 체결

빛고을체육인 건강 증진 ‘맞손’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5일 광주자생한방병원과 종목단체 임직원 및 소속 선수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편의 제공과 광주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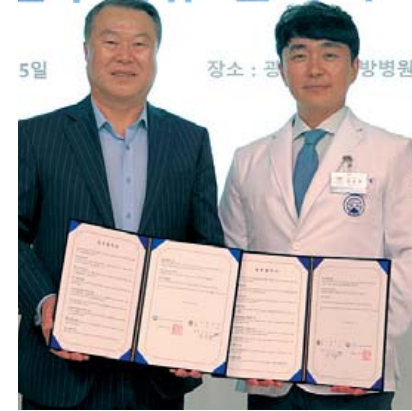
광주자생한방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염승철 광주자생한방병원 대표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체육회 소속 회원종목단체 생활체육인, 소속 선수,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원활한 진료 등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자생의료재단은 전국 21개 분원이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의료기관으로 빛고을체육인들의 잦은 부상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종목단체의 증빙자료 제출

업무제휴 협약식



시 소속 선수들과 임직원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자생한방병원이 광주시체육인의 건강 증진을 물론 광주시민들의 건강을 선도하고 광주체육발전을 위한 동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양궁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6일 출국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전훈영, 임시현, 남수현.

/연합뉴스

“금메달 3개 목표, 그 이상도”

‘올림픽 효자 종목’ 최강 한국양궁, 파리로 출국

“금메달 5개 중 3개를 목표로 삼고 갑니다. 행운이 더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성적도 가능합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양궁 대표팀이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리로 떠났다.

여자 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과 남자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으로 구성된 국가대표팀 선수 6명, 홍승진 총감독을 비롯한 지도자 5명에 의무·지원 스태프를 더한 총 13명이 장도에 올랐다.

이번 올림픽은 한국 선수단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메달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궁 대표팀에 쏠린

기대는 더욱 크다.

양궁에서는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 5개 종목이 치러진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개인전을 제외한 금메달 4개를 휩쓸었던 양궁 대표팀은 파리에서는 일단 5개 중 3개의 금메달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3개 만으로는 ‘최강’ 한국 양궁의 성에 차지 않을 터다. 대표팀에 금메달 3개는 ‘최소한’이다.

홍승진 총감독은 “파리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금메달 3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선수들이) 전부 다 컨디션 100%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야마구치·타이프링·천위페이 넘어야 금메달이다”

1번 시드 안세영, ‘금빛 여정’ 윤곽

‘배드민턴 퀸’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그려나갈 ‘금빛 여정’의 윤곽이 드러났다.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1번 시드를 받았다.

A조에 편성된 안세영은 세계 53위 치세페이(프랑스), 76위 갈로야나 날반토바(불가리아)를 무난히 꺾고 16강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강 부진승이 예정되는 안세영이 8강에서 만날 상대는 C조에 속한 야마구치 아가네(일본·세계 5위)일 가능성이 높다.

안세영이 야마구치를 꺾는다면 준결승에서는 세계랭킹 3위 타이프

링(대만)과 맞붙을 전망이다.

물론 김가는(26·삼성생명)이 8강전에서 타이프링을 꺾고 4강에서 안세영과 태극전사 맞대결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결승전에서는 2번 시드를 받은 세계 2위 천위페이(중국)와의 숙명적인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32강과 도쿄 올림픽 8강에서 천위페이에게 무릎을 꿇었던 안세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천위페이에게 시원하게 설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통산 전적에선 8승 12패로 밀리지만, 초반 7연패를 제외하면 안세영이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4년 계약+등번호 10번’...엄지성, 스완지 입단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한 2002년생 ‘전천후 공격수’ 엄지성이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스완지 시티에 입단했다.

스완지 시티는 15일(한국시간) 스완지 시티 AFC 홈페이지를 통해

홈페이지를 통해 엄지성의 영입을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다. 엄지성은 에이스의 상징인 등번호 10번을 받았다. 이적료는 120만달러(약 17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엄지성은 기성용(FC서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스완지

시티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됐다.

엄지성의 영입을 추진한 루크 윌리엄스 감독은 “그가 속도와 창의성을 팀에 안겨줄 거라 믿는다”며 “상대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도록 (임)지성이야 여러 (공격) 방법과 역동성을 가져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시아쿼터 도입안 KBO, 이사회에 상정키로

프로야구가 아시아쿼터 도입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프로 10개 구단 단장과 KBO 사무국은 16일 야구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실행위는 현재 구단당 3명씩 뽑을 수 있는 외국인 선수와 별도로 아시아 대륙 선수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쿼터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뜻을 모으고 최종 결정을 10개 구단 사장들의 모임인 이사회로 넘겼다.

10개 구단 단장이 아시아쿼터 도입이라는 대전제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갈림돌이 적지 않다.

연봉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 어떤 포지션의 선수를 선발할지, 일본과 대만은 물론 호주 선수도 선발 대상에 포함할지, 그리고 트라이아웃(공개 선수 선발)으로 할지 아니면 구단의 자유계약으로 할지 등이다.

특히 선발 포지션 문제는 프로야구 선수협화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대다수 구단이 아시아쿼터로 투수를 뽑길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외국인 투수 두 명과 함께 5명의 선발 투수 중 3명을 이방인으로 채울 수 있다.

이러면 국내 투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선수협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연합뉴스



화랑기 제45회 전국시도대항양궁대회에서 고등부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을 차지한 광주체고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광주체고 양궁, 화랑기 남녀 동반우승

2016년 중별 선수권 이후 9년 만...박주혁 대회 2관왕

광주체고 양궁부가 전국대회에서 9년 만에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양궁부는 지난 8·13일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화랑기 제45회 전국시도대항양궁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광주체고는 최우진(3년)·배정원(2년)·박주혁·심유한(이상 1년)이 팀을 이룬 남고부 단체전에서 강원(6-2 승), 대구(6-3 승), 경남(6-2 승)을 연파한 뒤 결승에서 대전을 5-3으로 꺾고 우

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는 여고부 단체전에서도 이다영(3년)·남지현·이윤아(이상 2년)·김성령(1년)이 팀을 이뤄 부산(6-0 승), 대구(6-0 승), 대전(6-3 승)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서 경기를 상대로 6-2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광주체고가 전국대회에서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을 한 것은 2016년 중별 선수권대회 이후 9년 만이자 화랑기대회에선 처음이다.

앞서 싱글라운드 거리별 50m에서

금메달을 따낸 박주혁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박주혁은 올림픽라운드 치러진 개인전 결승에서 박은성(대전체고)에 패해 은메달을 보냈고, 남지현과 팀을 이룬 혼성단체전에서도 값진 은메달을 합작했다.

남자 중등부에서는 광주체중 모성용(3년)이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모성용은 거리별 경기 60m와 3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금메달 5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낸 광주는 대전에 이어 시도대항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희중기자